

#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정 희 정 \*

- I. 머리말
- II. 예연의 절차와 의례음식상
- III. 대한제국기 진연 의례음식상의 변화
- IV. 주변 의례음식상의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朝鮮時代 五禮儀에 따라 거행한 禮宴은 단순히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儒敎 禮樂政治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이는 예연의 구성요소에 정치적 함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연을 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음악과 정재, 기물,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음식은 禮의 시작이다.<sup>1</sup> 조선시대 예연에서 의례음식상은 정해진 儀註에 맞추어 마련 되어 연향의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례의 규모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주변을 위한 복수의 의례음식상은 왕실의 威儀와 유교적 次序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상징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의례음식은 당대 소모되어 오늘날 실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의례의 거행시점에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예연의 의례음식은 다른 의례에 비해 시대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sup>1</sup> 『禮記』, 「禮運」, 夫禮之初 始者飲食.

로 많은 편이다.<sup>2</sup> 또한 예연에서 의례음식은 실제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관련 기물과 결합하여 의례 절차의 매개체이자 연향공간을 장엄하는 시각적 효과도 간취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거행한 예연의 의례음식상은 황제국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고찰하기 적합한 연향의 구성요소라 판단하였고, 의례음식상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대한제국기 예연의 의례음식상과 관련된 연구는 관련기물에 대한 것과 찬품의 변화에 대한 것이 있다. 대한제국기 황제국으로의 전환에 따라 연향의 음식상과 상보의 색이 황제를 의미하는 황색으로 변한 것이 밝혀졌고<sup>3</sup> 연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1892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찬품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4</sup> 그러나 연향의 가구 중 음식상인 찬안은 기형의 단순함에 의해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찬안의 크기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찬품 연구에서는 의례음식으로서 황제국 변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한제국기 거행된 연향에서 의례음식의 수와 분량 증가를 단순히 사치풍조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선이 황제국으로 전환한 후 대한제국기에 거행된 예연 관련 의궤는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이 중 1종은 왕대비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진찬이었으며, 3종은 고종을 위한 진연으로 외연과 내연을 모두 갖춘 대규모 예연이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19종의 예연의 궤 중 외연과 내연을 모두 갖춘 경우는 6번에 불과한데 그중 4번을 고종 재위기간에 거행한 것이며 다시 그중 3번을 대한제국기에 거행하였다(표 1). 1901년 7월부터 1902년 11월 단 1년 4개월 사이 진연이 집중적으로 거행된 것이 단순히 고종의 50세 생일과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기 위한 것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를 의례음식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례음식상의 많은 변화가 대한제국으로 전환하기 5년 전인 1892년 임진년 진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여 대한제국 진연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의례음식이 아니라 의례음식과 기물이 결합된 의례음식상을 의

2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3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방애영, 「朝鮮末期 宴享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4 김상보, 「20세기 조선왕조 궁중연향 음식문화」,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3(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p. 323-552.

표 1 조선시대 예연의 연회 구성

의궤	제작시기	대상자	외연	내연	연회횟수
豊呈都監儀軌	인조08년 (1630년)	대왕대비	×	○	1
[肅宗己亥]進宴儀軌	숙종45년 (1719년)	왕	○	×	1
[英祖甲子]進宴儀軌	영조20년 (1744년)	왕	○	○	2
受爵儀軌	영조41년 (1765년)	왕	○	○	2
園幸乙卯整理儀軌	정조19년 (1795년)	자궁	×	○	1
己巳進表裏進饌儀軌	순조09년 (1809년)	자궁	×	○	1
慈慶殿進爵整禮儀軌	순조27년 (1827년)	왕·왕비	×	○	1
[純祖戊子]進爵儀軌	순조28년 (1828년)	왕비	×	○	3
[純祖己丑]進饌儀軌	순조29년 (1829년)	왕	○	○	4
[憲宗戊申]進饌儀軌	헌종14년 (1848년)	대왕대비	×	○	4
[高宗戊辰]進饌儀軌	고종05년 (1868년)	대왕대비	×	○	2
[高宗癸酉]進爵儀軌	고종10년 (1873년)	대왕대비	×	○	4
[高宗丁丑]進饌儀軌	고종14년 (1877년)	대왕대비	×	○	4
[高宗丁亥]進饌儀軌	고종24년 (1887년)	대왕대비	×	○	6
[高宗壬辰]進饌儀軌	고종29년 (1892년)	왕	○	○	5
[光武辛丑]進饌儀軌	광무05년 (1901년)	왕대비	×	○	6
[光武辛丑]進宴儀軌	광무05년 (1901년)	왕	○	○	5
[光武壬寅四月]進宴儀軌	광무06년 (1902년)	왕	○	○	5
[光武壬寅十一月]進宴儀軌	광무06년 (1902년)	왕	○	○	5

『園幸乙卯整理儀軌』, 『[純祖戊子]進爵儀軌』, 『[純祖己丑]進饌儀軌』 등 3번의 연회는 정일연향과 탄일연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의 연향 횟수는 정일에 거행한 연향만의 횟수이고 주빈의 탄신일에 맞춰 내전에서 행한 연회는 제외한 횟수이다.

례절차의 매개이자 공간연출의 요소로 인식하고 연구하였다. 대한제국기 3종의 진연의궤와 임진년 진찬 중 의례음식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기물과 관련하여 분석하여 의례음식상의 변화와 의례음식상의 공간 장식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연의 의례음식상에 담고자 하였던 고종의 정치적 의도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의례음식상과 관련하여 궁중기록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예연의 절차와 의례음식상

오례의로 거행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연향은 주빈에게 술잔을 올리는 행위인 獻爵를 중심으로 의식이 거행된다. 미리 규례에 맞게 의주를 정하고 이에 맞게 주빈 의례음식상을 마련하였다. 길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례 절차를 세종대 정하였는데, 연향 관련하여 정기적인 연향의 의주인 「會禮儀註」와 비정기적인 연향의 의주로 「豐呈儀註」 등이 논의되었다.<sup>5</sup> 그러나 최종적으로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는 정초나 동지의 회례연 의주인 「正至會儀」와 「中宮正至會命婦儀」만 실렸고, 「풍정의주」는 실리지 않았다(표 2).

표 2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국가전례서 예연 의주

연향 \ 전례서	세종실록오례의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대한예전
會儀	正至會儀 中宮正至會命婦儀	正至會儀 中宮正至會命婦儀	기존 의례 유지	正至會儀
宴儀	없음	없음	進宴儀 王妃進宴儀 大王大妃進宴儀 三殿進宴儀 御宴儀	進宴儀 皇后進宴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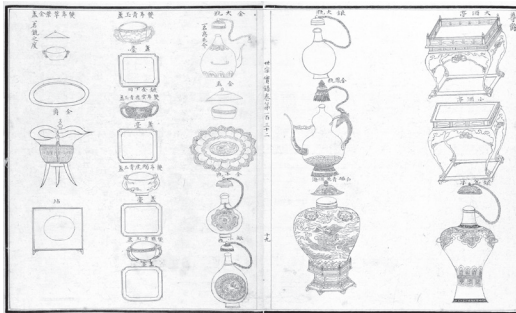
조선시대 초기 마련한 국가의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정, 보완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예연의 경우 조선시대 중기이후 정기적인 연향이 점차 사라지고 비정기적인 연향의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영조대 보완한 의례집인 『국조속오례의』(1744)에 비정기적인 연향의 의주 5가지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보다 앞서 인조8년(1630) 풍정연을 거행하려고 할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국가 기록이 소실되어 전거할 기록이 부재하자 『국조오례의』의 「중궁정지회명부의」를 참조하여 의주를 마련하였다.<sup>6</sup> 이렇게 만들어진 『풍정도감의궤』의 의주는 전례를 따르는 조선시대의 특성상 이후 조선후기 예연 의주의 전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686년에서 1744년 사이 실제 거행되었던 예연의 의주들이 『국조속오례의』에 포함된 것이다.

<sup>5</sup> 『조선왕조실록』 세종 13년(1431) 10월 3일 회례의주를 논하였고, 세종 21년(1439) 3월 2일 풍정의주를 논하였다.

<sup>6</sup> 『풍정도감의궤』 「의장색」 1630년 3월 25일 文籍並皆蕩失無憑 可據以五禮儀 王妃殿朝賀內宴儀略加損益 磨鍊儀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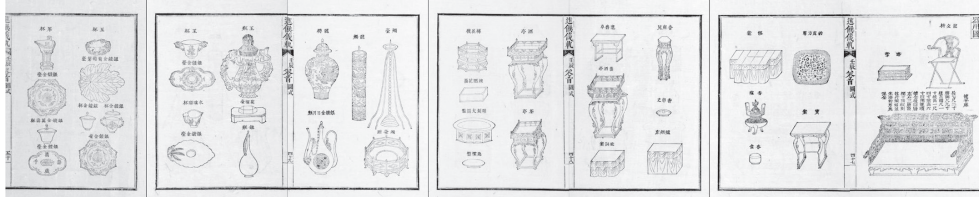
표 3 국가전례서 예연 의주의 주빈 의례음식상 비교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대한예전		
正至會儀	中宮正至會命婦儀	進宴儀	王妃進宴儀	正至會儀	進宴儀	皇后進宴儀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排設壽酒亭
四拜	四拜	四拜	四拜	四拜	四拜	四拜
		揮巾函	揮巾		揮巾函	揮巾
饌案	饌案	饌案	饌案	饌案	饌案	饌案
		別行果	別行果		別行果	別行果
進花	進花	花盤	進花	進花	花盤	進花
		鹽水	鹽水		鹽水	鹽水
膳	膳	(空案) 小膳	(空案) 小膳	膳	(空案) 小膳	(空案) 小膳
第1爵	第1盞	第1爵	第1爵	第1爵	第1爵	第1爵
		(割肉) 饅頭	饅頭		(割肉) 饅頭	饅頭
第2爵-第8爵	第2盞-第8盞	第2爵-第8爵	第2爵酒湯	第2爵-第8爵	第2爵-第8爵	第2爵酒湯
酒湯	酒湯	酒湯	第1盞-第6盞	酒湯	酒湯	第1盞-第6盞
			酒湯			酒湯
第9爵	第9盞	第9爵	第7盞	第9爵	第9爵	第7盞
大膳	大膳	大膳	大膳	大膳	大膳	大膳
撤案 -青袱收果饌餘	撤案	撤案 -青袱收果饌餘	撤案	撤案 -青袱收裏卓餘	撤案 -牧裏膳餘各以青袱	撤案 -宗親以下牧裏膳餘各以青袱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도 1 『세종실록오례서례』 「가례서례」

대한제국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위상을 제후국에서 황제국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모든 의례와 격식을 황제국의 위상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大韓禮典』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예연 관련한 의주는 회례연인 「正至會儀」와 비정기적 연향의 의주인 「進宴儀」와 「皇后進宴儀」가 동시에 실



도 2 『光武壬寅十一月進宴儀軌』 「圖式-器用圖」

렸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국가전례서의 예연 의주에 나타난 의례음식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기본적으로 예연은 주빈에게 9번의 술잔을 바치는 것이 중심된 의례이며, 술과 함께 湯으로 표현된 味數라는 의례음식상을 받쳤다. 헌작이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世宗實錄五禮序例』에도 헌작을 위한 수주정과 술병, 술잔 등이 예기로서 그려졌고 이는 마지막 진연의례의 도식까지 이어졌다(도 1, 2). 회례연의 경우 제 1작이 올라가기 전인 연향이 시작된 시점에 饌案과 膳이 올랐으며, 마지막 술잔이 받쳐진 후 大膳이 올랐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연향에서는 揮巾 또는 揮巾函과 別行果, 鹽水 등이 더 받쳐지며, 소선에 앞서 空案이 찬안의 오른쪽에 놓이고, 첫 번째 술잔을 올린 후 割肉, 즉 소선을 잘라 바치는 행위가 더해져 회례연보다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의례 절차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의례음식상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大韓禮典』의 「정지회의」는 『국조오례의』 「정지회의」와 동일하며, 「진연의」의 의례음식상은 『국조속오례의』의 「진연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대한제국기 황제국으로의 변화에 기인한 예연 주빈의 의례음식상 변화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행한 대한제국기 진연의례의 분석하였을 때 의례음식상은 『대한예전』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한 예연에 거행한 연향의 횟수가 외연과 내연 외 야연, 회작연 등으로 총 5회의 연향을 설행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국조오례의』 「정지회의」와 「중궁정지회명부의」에서 정조와 동지에 외전과 내전에서 대전과 중궁전이 각각 문무백관과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朝賀儀를 마친 후 정기적인 회례연을 거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外宴, 內宴이라 하였다.<sup>7</sup> 조선시대 후기 가례 연향이 비정기적인 성격으로 바뀐 후에도 외연과 내연은 함께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대부분 내연

7 외연과 내연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마지막 철안 후 외연에서만 “청보수과찬여(靑褸收果饌餘)”라 하여 남은 음식을 푸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차이가 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正至會儀」부터 마지막 진연의례까지 그대로 이어졌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음식이 반가에 소개되고 유입된 경로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만 거행하고 왕이 대신을 거느리고 행하는 공식적 성격이 강한 외연은 거의 거행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궁중의 가례 연향의 주빈이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에게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더불어 연향의 성격이 국가적 차원에서 왕실 규모의 가족적 차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8</sup> 대신 正日內宴 후 會酌宴, 夜宴 등이 더해져 실제 한 예연에 거행하는 연회의 횟수는 3회에서 최대 6회까지 증가하였다(표 1). 또 19세기 내연의 참여자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함께 참석하였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봉수당진찬은 자궁인 혜경궁을 위한 것으로 의례는 내연이지만 연향의 공간이 궁궐 밖으로 이동하면서 외연과

표 4 대한제국 진연의례 의주의 주빈 의례음식상

進宴儀軌	
外進宴儀	內進饌儀
排設 壽酒亭茶亭	排設 壽酒亭茶亭
四拜	四拜
揮巾函	揮巾函
大卓	
饌案	御饌
別行果	
花盤	進花
鹽水	
小膳	
第1爵	第1爵
湯-兼進味數	味數
湯 饅頭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
	第2爵-味數
進茶	進茶
第2爵-第9爵 湯-味數	第3爵-第7爵 湯-味數
大膳	別行果
撤案 青猷收果饌餘	撤案
禮畢	禮畢

내연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외연의 참여자인 諸臣이 내연적 성격의 연향에 참여하면서 이후 19세기 내연이 궁궐에서 거행됨에도 宗親인 남성뿐 아니라 제신도 참가하는 변화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은 『대한예전』의 「진연의」와 「황후진연의」를 따르지 않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표 4). 외연에서는 大卓, 그리고 만두를 올리기 전에 또 한번의 湯을 바치지만 割肉은 하지 않으며 내연에서는 소선, 대선, 별행과가 의례에 오르는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進茶가 포함된 것이다. 茶는 고려시대 연향의 의례음식상에 포함되었지만 조선시대 초기 회례연 등 연향의 의주를 정할 때 제외된 것이다. 그런데

<sup>8</sup> 지두환은 16세기 사림정치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왕실례가 초기 사대부례와 구분되었던 것에서 후기 天下同禮사상으로 유교에 대한 이해가 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지두환, 『朝鮮後期 進宴 儀禮의 變遷-仁祖代에서 高宗代까지』,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민속원, 2005), pp. 14-68.

『[純祖戊子]進爵儀軌』(1828)부터 차가 의례음식상으로 의주뿐 아니라 「찬품」에 등장하였고 기물로 茶亭이 마련되었다. 이후 19세기 진작과 진찬 등에 지속적으로 茶가 등장하였지만 『대한예전』의 연향 관련 의주에는 없는 의례음식상이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진연에서 茶와 茶亭은 19세기 관례대로 마련되었다.

황제국 내연 의주인 「황후진연의」에 의하면 첫 술잔을 올리기 전에 찬안 후 별행과가 오르고 마지막에 대선이 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진연의궤 의주를 보면 내연에서 제 1작 후 소선 대선 만두 등이 오르고 연향의 초반에 오르는 별행과가 가장 마지막 의례음식상으로 올랐다. 또 제 1작과 제 9작 다음에 미수를 올리지 않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올렸다. 이런 의주의 변화도 『[순조무자]진작의궤』부터 나타난 변화이고 19세기 내연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대한제국으로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대한예전』에 의주를 정리하였지만 실제 진연을 거행할 때 19세기의 전례를 따라 진행한 것이다.<sup>9</sup>

대한제국기 외연을 『대한예전』 「진연의」와 비교하면 進茶 외 찬안 전에 大卓이 마련되었으며 제 1작과 제 9작에도 미수가 마련되었다. 또 의례음식상인 만두를 올리기 전에 湯이 한 번 더 올라 의례음식상의 수가 더 많다. 그러나 만두를 올리기 전에 割肉을 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즉 進茶가 추가되고 割肉의 절차가 빠진 것은 19세기 내연의 관례를 따른 것이지만 大卓의 증가는 새로운 문제이다. 대탁이 의궤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영조 『수작의궤』(1765)로 영조는 연향을 간소히 치르게 하면서 대탁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였다.<sup>10</sup> 이는 영조대 대탁이 진연에 필수적인 의례음식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대탁이 19세기 예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대한제국 진연의 외연에서는 재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조선 왕실에서는 외연은 1829년 순조 기축년 진찬과 1892년 고종 임진년 진찬 2차례만 거행되었는데 『[純祖己丑]進饌儀軌』에는 대탁이 없었으며, 『[高宗壬辰]進饌儀軌』부터 대탁이 대탁찬안으로 부활하여 대한제국 진연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이때 의례음식상의 수가 가장 많아졌고, 의례음식상에 올라가는 찬품의 수도 가장 많아졌으며, 또 각 찬품의 분량도 많아졌다. 임진년 진찬의 외연과 내연 모두 의주와 의례음식상의 변화가 그대로 대한제국기 진연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 진연에서 외연을 거행한 것, 의례음식상의 수와 의례절차와의 관계는 대한제국 전환과는 무관하게 이미 1892년 임진년 진찬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sup>9</sup> 대한제국기 거행한 진찬에서는 정일진찬인 내연과 회작 등 총 6차례의 연향이 있었다. 그 중 내연의 의주 속 주변 의례음식상도 19세기 관례대로 바쳐졌다.

<sup>10</sup> 1744년 수작연에서 영조의 전교에 의해 대탁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수작의궤』에는 처음 준비할 때 기록한 대탁의 찬품에 대한 정보가 있다. 대탁은 총 24종의 유밀과와 과실로 구성된 상이다.

### Ⅲ. 대한제국기 진연 의례음식상의 변화

이 장에서는 대한제국 진연의례의 「찬품」을 분석하여 황제국으로의 변화와 관계된 의례음식상을 알아보려고 한다.<sup>11</sup> 앞서 「의주」의 분석으로 대한제국기 진연 주빈 의례음식상이 임진년 진찬과 동일함을 알았는데 「찬품」의 분석을 통해 각 의례음식상의 음식 종류와 가짓수, 고임의 높이, 즉 분량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황제국으로의 변화와 관계된 의례음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한제국기 진연에서 주빈에게 대탁찬안, 찬안, 별행과, 소선, 대선, 염수, 탕, 만두, 9번의 미수, 그리고 차 등 18개의 음식상이 의례절차에 따라 받쳐졌다. 이는 현전하는 연향 관련 의례 19종의 의례음식상을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은 수이다.<sup>12</sup> 그리고 각 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수도 이전에 비해 급증하여 대한제국기 연향에서는 가장 화려한 의례음식상이 주빈을 위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대로 주빈의 의례음식상이 극대화된 현상은 대한제국 이전인 1892년 신축년 진찬에서부터 나타났으며, 대한제국기 황제국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주빈 의례음식상의 수나 음식의 가짓수 변화는 없었다.

대한제국 진연의례의 「찬품」을 분석하였을 때 임진년 진찬과 비교해 변화가 보인 의례음식상은 小膳, 大膳, 그리고 鹽水의 분량이었다(표 5). 소선은 牛肉熟片 陽支頭5部, 羊肉熟片 羊3口에서 牛肉熟片 陽支頭10部, 羊肉熟片 羊5口 그리고 대선은 猪肉熟片 猪2口, 鷄肉熟

표 5 대한제국 진연의 소선·대선·염수 변화

의례	제작시기	小膳	大膳	鹽水
[高宗壬辰]進饌儀軌	고종29년 (1892년)	牛肉熟片 陽支頭5部 羊肉熟片 羊3口	猪肉熟片 猪2口 鷄肉熟片 陳鷄30首	白鹽 5夕
[光武辛丑]進宴儀軌	광무5년 (1901년)	牛肉熟片 陽支頭10部 羊肉熟片 羊5口	猪肉熟片 猪4口 鷄肉熟片 陳鷄50首	白鹽1合
[光武壬寅四月] 進宴儀軌	광무6년 (1902년)	牛肉熟片 陽支頭10部 羊肉熟片 羊5口	猪肉熟片 猪4口 鷄肉熟片 陳鷄50首	白鹽1合
[光武壬寅十一月] 進宴儀軌	광무6년 (1902년)	牛肉熟片 陽支頭10部 羊肉熟片 羊5口	猪肉熟片 猪4口 鷄肉熟片 陳鷄50首	白鹽1合

11 예연의 의례음식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상에 따른 음식상이며, 또 하나는 의례의 절차와 관계된 주빈의 음식상이다. 대한제국 진연에서 연향에 관계한 군병에게 내리는 궤찬을 받는 수에 대해 『고종임진진찬의례』와 『광무신축진연의례』를 비교하면 외연에서는 6,386명에서 13,21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며, 내연에서는 668명에서 12,625명으로 거의 20배가 증가하였다.

12 정희정, 「조선 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片 陳鷄30首에서 豬肉熟片 豬4口, 鷄肉熟片 陳鷄50首로 증가하였고, 염수도 白鹽 5夕에서 白鹽1습으로 증가하였다. 즉 세 음식상의 내용은 동일하고, 분량만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소선, 대선, 염수 등에 사용한 기물의 경우 朱漆小圓盤에 甲燔磁器에서 黃漆小圓盤에 磁器로 소원반의 색이 붉은 색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음식 위에 꽃히는 상화는 소선과 대선에 각각 月桂花 2개씩으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황제국으로 치른 대한제국 진연의 주빈의 의례음식상은 모든 면에서 1892년 진찬의 의례음식상과 동일한데<sup>13</sup> 소선, 대선, 염수만 분량이 2배 증가한 것은 이 세 음식상이 황제국의 전환과 맞물린 의례적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선, 대선, 염수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선은 조선시대 연향에서 현작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음식상으로 찬안을 올린 후 제 1작 전에 올리는 상이며, 대선은 마지막 현작 후 올리는 의례음식상이다. 그리고 염수는 소선에 앞서 받쳐졌던 상으로 이도 의례적 성격이 강한 상이다.<sup>14</sup> 소선, 대선, 염수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이 세 가지 음식상이 국왕과 대신의 논의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선·대선과 염수는 고려시대 예연에는 없는 조선시대 예연에서 등장하는 의례음식상인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고려시대 예연의 의주를 기록한 『高麗史』 「禮志」〈大觀殿宴君臣儀〉도 9번의 현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반적으로 의례절차가 동일하여 조선시대 유교식 예연의 연원으로 판단되는데, 의례음식상에서 소선, 대선, 염수가 없는 점이 다르다.<sup>15</sup>

조선시대 예연의 특징적인 의례음식상인 소선, 대선, 염수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은 재료 중 하나인 唐雁이었다. 당안은 기러기이거나 또는 다른 조류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향의궤인 『풍정도감의궤』에서 소선과 대선은 각각 양, 당안, 소갈비 그리고 돼지, 당안, 소뿔다리였으며, 『[숙종기해]진연의궤』와 『[영조갑자]진연의궤』에는 사용한 재료가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각 3器라고 하여 인조대 풍정연의 소선, 대선과 동일할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당안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인조대 호란 후 어려운 시기 사신접대 및 연향에 당안 대신 닭이나 오리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영조대 염수당안을 대신하여 면을

<sup>13</sup> 음식 고임높이도 거의 동일하나, 내진연 대전 찬안의 고임의 경우 1892년이 1尺8寸인 것에 비해 대한제국기 진연의 고임높이가 1尺5寸으로 1892년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sup>14</sup> 『[英祖甲子]進宴儀軌』에 의하면 염수는 소선과 동반하는 음식상으로 파악되나, 의궤에서 언급하고 있는 『樂學軌範』에 염수가 등장하지 않아 언제부터 염수가 의례에 등장한 의례음식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sup>15</sup> 정희정, 앞의 논문, pp. 10-33. 이 외 고려시대에는 進湯이 있는 것이 다르다.

넣은 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세종대에도 이미 당안은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었고<sup>16</sup>, 무엇보다 선조대 이전 각 지방에 분정되었던 물목을 서울에 와서 방납하는 것으로 변화였는데 당안 1마리가 말 1마리에 해당할 정도로 값이 올라 백성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컸던 물목이었다.<sup>17</sup>

소선과 대선, 염수는 함부로 조정할 수 없는 의례음식상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조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영조는 갑자년 진연(1744)에서 검소함을 드러내고자 외연에서 소선과 대선을 감하도록 하였고 가장 검소하게 치른 수작연에서도 소선과 대선을 감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행음묘정리의궤』(1795)부터 『자경전진작정리의궤』(1827)까지 소선과 대선에 대한 기록은 모호하다. 의례절차를 적은 「의주」에는 소선과 대선이 적혀있지만 실제 음식 장만과 관련된 「찬품」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순조무자진작의궤』부터 다시 「찬품」에 구체적으로 소선과 대선, 염수가 기록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소선과 대선에서 당안은 제외되고 소와 양, 그리고 돼지와 닭고기로 구성된 2甞씩으로 변화하였으며, 요리의 방식은 삶아서 통째 올리던 것에서<sup>18</sup> 삶아서 자른 형태인 熟片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예연에서는 소선과 대선의 당안이 제외되고, 조리의 형태가 고기를 자른 절편으로 바뀌었다. 이는 영조 49년(1773) 연향을 준비하면서 영조가 膳의 의미와 孝의 실행 등을 근거로 들어 당안을 완전히 제외시켰고 또 조리방법을 切肉을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연향의 의주에서 소선과 대선의 변화뿐 아니라 소선을 잘라 주빈에게 바치는 割肉이라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sup>19</sup>

소선과 대선을 담는 그릇의 크기의 변화가 없었다면 소선과 대선의 분량 증가는 고임높이를제후국의 2배 상승시키는 결과를 유도한다. 의례상에서 고임높이는 미리 정해 놓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sup>20</sup> 의례에서 음식의 높이는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에 맞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예를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sup>16</sup>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1433) 윤8월 15일 4번째 기사.

<sup>17</sup> 『조선왕조실록』 선조 34년(1601) 12월 6일 2번째 기사, 선조 34년(1601) 12월 7일 1번째 기사.

<sup>18</sup> 『조선왕조실록』 인조 4년(1626) 4월 3일 첫 번째 기사에 중국 사신의 연향때 소선과 대선을 肉膳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禮饌을 羊猪鵝雁을 통째로 사용하고, 빈주인 서로 조진할 때 할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광해군1년(1609) 4월 16일 기사에도 대소선은 裁割하여 드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sup>19</sup> 정희정, 앞의 논문, pp. 84-96.

<sup>20</sup>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6월 19일 20번째 기사. 1624년 소현세자의 책봉을 위해 온 명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 인조는 고임높이가 낮아 보인다고 하자 영접도감은 여러 등록에 기록된 각 음식의 고임 높이를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자를 가지고 가 맞는지 측정하였다고 답하였다.

임의로 그 규모와 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례음식상은 황제국으로 전환이 있기 전에 이미 한차례 그 수와 규모를 극대화하여 왕권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임의로 변화할 수 없었던 의례음식상인 소선, 대선, 염수는 대한제국기 진연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상보를 씌운 상에 받쳐져 특히 소선과 대선은 기존의 2배의 높이로 예연의 시작과 끝에 등장함은 신축년과 임인년 진연이 제후국과 차별화된 의례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 IV. 주변 의례음식상의 공간 연출과 정치적 함의

대한제국기 진연은 앞서 살펴본 소선, 대선, 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례음식상은 1892년임진년 진찬을 따르고 있다. 고종 29년에 거행한 임진년 진찬은 무엇보다 외연을 다시 하게 된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예연이 군신관계를 드러낸 회례연 중심에서 왕실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19세기 외연은 거의 사라져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시 거행하였던 기축 진찬연(1829)에서의 외연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종은 외연은 다시 거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조선시대 연향에서 사라졌던 大卓이라는 의례음식상이 大卓饌案으로 외연에서 부활하였으며 황제국으로의 전환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탁은 숙종대와 영조대의 예연에는 존재하였지만 순조대 기축년 진찬연에서는 마련하지 않았던 고식적 의례음식상이다<sup>21</sup>

본 장에서는 대탁의 부활과 관련하여 고종대와 대한제국기 외연에서 주변 의례음식상이 연향이 펼쳐지는 공간에서의 장식적 역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향 의례에 주변의 의례음식상에 대해서는 「의주」, 「찬품」외 「배설」과 「도식」 등에도 정보가 산재해 있다. 「찬품」을 통해 각 상의 찬품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의주」를 통해서도 의례 진행 중 각 상이 연향 공간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연향 공간에서 의례음식상이 차지하는 역할의 문제는 「배설」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주변의 여러 상 중 饌案만 다루고 있다. 「배설」에서 饌案은 「찬품」의 대탁찬안과 찬안상과 별행과상을 의미하여 이 세상을 총칭하여 찬안이라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식」에서도 사용된 기물 일부를 살펴

<sup>21</sup> 대탁은 유밀과와 과실로 구성되었으며 대탁찬안은 유밀과와 과실 위주이며 전유화 2가지가 섞인 상으로 찬품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연의 중심상이 대탁에서 찬안으로 변화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희정, 앞의 논문, pp. 76-82.

볼 수 있는데, 饌案을 위주로 그려져 있으며 내연의 小盤果에 사용된 彫刻大圓盤 외 미수, 염수, 소선 등에 사용된 기물은 그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의궤의 「배설」과 「도식」은 주빈의 모든 의례음식상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대탁, 찬안상, 별행과상 위주의 饌案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향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공간에 위치하여 공간 장식과 연출에 관여하는 상이 찬안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미수, 소선, 대선, 탕, 만두, 진다 등은 현작의 순서에 따라 등장하였다 사라졌기 때문에 배설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제국기 진연의궤의 외연과 내연의 「찬품」과 「배설」을 함께 검토한 후 「도식」에 그려진 기물 중 관련 있는 그림을 연결시켰다(표 6). 외연에서는 「찬품」의 대탁찬안과 찬안, 별행과를 모두 합한 상의 좌수가 18좌이며 「배설」에서는 이 중 찬안 14좌와 협안4좌에 대

표 6 대한제국 진연의궤 주빈 의례음식상 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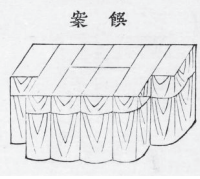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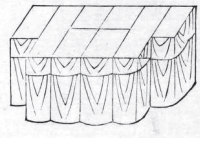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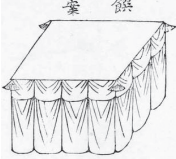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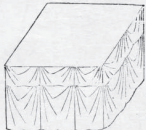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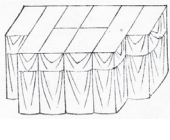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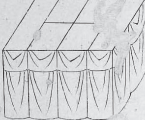
연향	상의 종류	饌品	饌品	圖式
외연	찬안상류	대탁찬안-黃漆高足饌案12坐	饌案14坐挾案4坐-并黃漆饌案12坐挾案4坐合設於榻前饌案2坐合設於榻上	
		찬안-黃漆高足饌案2坐		
		별행과-饌案左右設挾案4坐		
	미수·염수·소선·대선·탕·만두·차	黃漆小圓盤	내용 없음	없음
내연	찬안상류	찬안-黃漆高足饌案12坐	饌案12坐挾案4坐-并黃漆合設	
		별행과-饌案左右設挾案4坐		
	소반과	黃漆彫刻高足別大圓盤	내용 없음	
	과합	饌檯	내용 없음	없음
	미수·염수·소선·대선·탕·만두·차	黃漆小圓盤	내용 없음	없음

표 7 조선시대 예연의례 「도식」의 찬안 변화

의례	己巳進表裏進饌儀軌	慈慶殿進爵整禮儀軌	[純祖戊子]進爵儀軌 [純祖己丑]進饌儀軌	[憲宗戊申]進饌儀軌	[高宗戊辰]進饌儀軌
배설	내용 없음	饌案4坐 長挾案2坐	饌案4坐 挾案2坐 饌案2坐 補案1坐	饌案6坐 挾案2坐	饌案4坐 挾案2坐
도식					

해 기록하고 있으며 내연에서는 「찬품」의 대탁찬안과 찬안, 별행과를 모두 합한 상의 좌수가 16좌이며 「배설」에서는 이 중 찬안 12좌와 협안4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도식」에 그려진 찬안의 모습은 기록화에 그려진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丁)자 모양으로 찬안 6좌와 협안 2좌로 구성된 듯한 모습으로 「찬품」과 「배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향 의례의 「도식」에 기록된 찬안을 정리하였다.(표 7) 『己巳進表裏進饌儀軌』부터 「도식」에 찬안이 기록되었고 이후 의례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의 찬안이 그려졌다. 이를 「배설」과 함께 보면 순조대 도식에는 찬안이 합설되지 않은 상태로 그려졌으나 『헌종무신]진찬의례』 「도식」에서 처음으로 합설된 정(丁)자 모양으로 그려졌다. 이때 「찬안」과 「배설」은 찬안 6좌와 별행과 협안2좌로 총 8좌의 상이 합쳐진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별행과가 찬안의 좌우에 합설된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예매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高宗戊辰]進饌儀軌』에서 찬안 4좌와 별행과 협안2좌가 좌우에 합설된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 총 6좌가 합설되었을 때에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며, 거기에 찬안이 2좌가 더해진 경우 정(丁)자모양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정(丁)자모양의 찬안은 고족찬안의 수가 2배 증가한 상태로, 찬안 12좌와 별행과 협안 4좌가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면 대한제국기 외연에 사용된 찬안상류의 18좌 고족찬안 중 정(丁)자형의 찬안에 포함되지 않은 2좌의 찬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배설」에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饌案14坐挾案4坐-并黃漆饌案12坐挾案4坐合設於榻前饌案2坐合設於榻上

즉 찬안 12좌와 협안 4좌를 합쳐 어탑 앞에 배설하고 찬안 2좌는 어탑 위에 배설하도록 하였다. 합설한 상은 대탁찬안과 별행과에 해당하며, 나머지 찬안 2좌는 합설된 상과는 별도로 어탑 위에 배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탁이 없는 내연의 「찬품」, 「배설」, 「도식」과도 일치한다.

찬안상류가 주빈의 앞에 하나의 상으로 합설되지 않고, 대탁찬안+별행과와 찬안으로 분리된 것은 대탁찬안이라는 의례음식상이 재등장하였기 때문에 나온 새로운 배설방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탁이 예연에 다시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 이전 고종 임진년이다.

임진년 진찬에서 63년 만에 외연을 되살리는 예연을 준비함에 전반적인 의절을 숙종, 영조, 순조의 예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탁, 찬안, 별행과는 계사년 전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高宗壬辰]進饌儀軌』 「入對筵說」壬辰7月初四日

승曰凡 於儀節謹遵 肅廟 英廟 純廟三聖朝已例卽爲磨鍊可也…

승曰外宴時大卓饌案別行果一依癸巳年例爲之…

승曰內宴時 大殿 中宮殿大卓饌案別行果器數亦依癸巳年例爲之…

그러나 실제 외연에서는 대탁이 부활하지만 내연에서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종이 최종적으로 동궁의 처분을 듣고 내진찬에서 대탁찬안은 그만두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이다.<sup>22</sup> 그리고 대한제국 전환 후 신축년 진연을 거행할 때 전반적인 의절은 숙종과 영조대 예와 임진년 전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대탁, 찬안, 별행과는 영조대 계사년 전례를 따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한제국 전후 예연 중 외연에서만 대탁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탁, 찬안상과 별행과상은 의례의 제1작이 주빈에게 받쳐지기 전에 연향이 거행되는 공간에 배설하였다. 이 상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찬품들은 모두 높게 고이고, 다시 상화를 꽃아 화려하게 장식한 채 먹지 않고 연향이 마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sup>23</sup> 그러므로 연향이 진행되는 동안 찬안상류는 주빈의 앞에 화려하게 배설되어 연향의 규모와 주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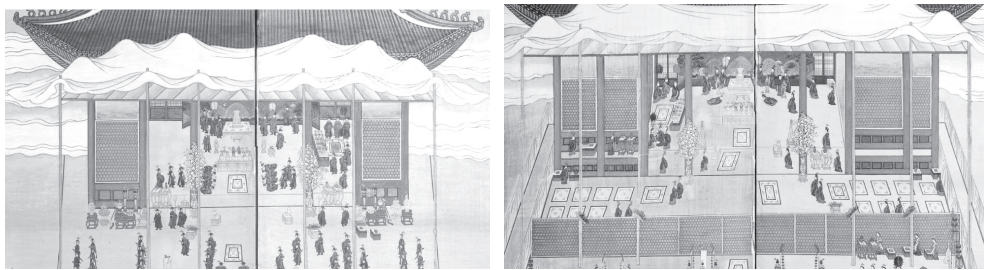
<sup>22</sup> 『승정원일기』 1892년 9월 18일 傳曰, 知道, 內進饌時大卓饌案置之, 外進饌時世子宮別行果二器, 加磨鍊.

<sup>23</sup> 김상보는 연향 참가자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음식상류를 간반(看盤)이라고 하였다. 金尙寶, 『朝鮮王朝宮中儀軌飲食文化』(修學社, 1995),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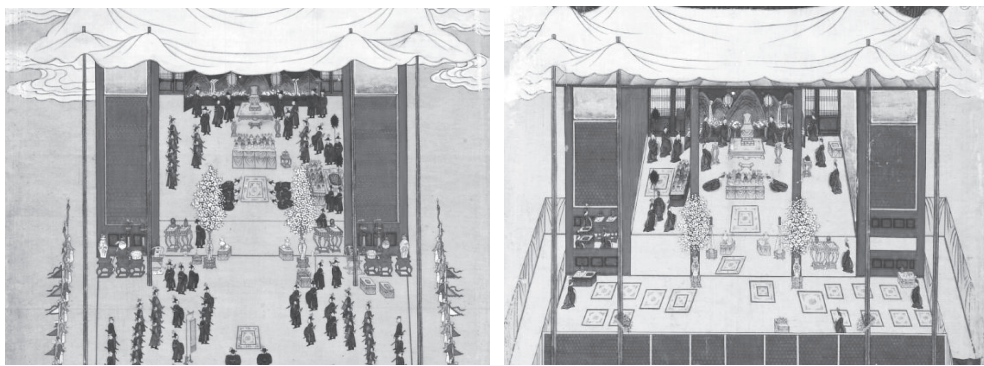
위상을 드러내는 데 공간 연출의 한 축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외연에서는 대탁찬안과 별행과를 이루는 16좌의 고족찬안이 어탑 앞, 즉 주빈의 앞에 정(丁)자 모양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2좌의 찬안을 어탑 위에 배설함으로써 수직적으로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군신간의 차등을 강조하고,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종이 다시 외연을 부활하고자 할 때 전례로 참고한 것은 외연이 거행되었던 숙종, 영조, 그리고 순조였으며, 의례음식상 중 주빈의 앞 공간에 놓이는 것은 영조대 계사년의 전례를 따랐다. 영조 계사년 진연은 영조 팔순을 기념한 예연으로 왕권이 가장 강한 시기에 해당한다. 고종이 새롭게 부활한 외연에 전례를 삼고자 한 의례음식상이 순조대 외연이 아니라 영조대인 것은 영조대를 지향해야 할 시대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연에서는 대탁을 되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찬안과 별행과상의 수는 2배 증가하였지만 배설의 모습은 19세기 내연의 공간연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고종이 예연을 통해 드러내고자한 정치적 함의가 내연보다는 군신의 관계를 형상화한 외연에서 더



도 3 <辛丑進宴圖屏> 8폭 외진연(부분), 내진연(부분), 각 149.5×48.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4 <壬寅進宴圖屏> 10폭 외진연(부분), 내진연(부분), 각 162.3×59.8cm, 국립국악원 소장

담겨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진연을 그린 기록화에는 대탁이 보이지 않으나 실제 연향에서는 기록화에 보이는 것 보다 주빈의 앞이 더 복잡하고 화려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4</sup> 진연도병에 기록된 주빈의 의례음식상의 모습은 정확하지 않거나 배설의 시간차이에 의해 찬안상류가 다 차려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는 관례에 따라 관습적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외연에서 의례음식상이 연향의 공간에 등장하는 순서는 대탁 → 찬안 → 별행과이므로 기록화에 그려진 직사각형의 찬안상류는 대탁만이 배설된 상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 (도 3, 도 4).

## V. 맺음말

이상으로 대한제국기 진연의 정치적 함의를 의례음식상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다. 오례의에 따른 예연에서 주빈을 위해 마련된 복수의 의례음식상 중 주요한 의례음식상은 실제 먹기 위한 것이기 보다 의례 진행의 매개체이자 공간을 화려하게 장엄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관련 기물들과 결합하여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에서 시각적 장식의 장치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예연의 의례절차와 관련된 주빈의 의례음식상 변화는 대한제국기 전인 1892년 진연에서 외연을 되살리고, 의례음식상의 수와 규모를 극대화시킨 변화가 한 차례 있었다. 이때 의례음식상이 절차상 등장하는 순서는 숙종과 영조대의 고식을 따랐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새롭게 마련한 『대한예전』의 進宴儀와 皇后進宴儀를 따르지는 않았다.

특히 의례공간의 중심인 주빈의 앞에 놓이는 찬안상류에 19세기 연향에서 사라졌던 대탁을 되살리고, 찬안상류의 배설 방식을 새롭게 하여 주빈의 앞자리를 화려하게 연출한 것은 고종이 대한제국기 연향에서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였는지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과 칭제 선언 후 연향부터가 아니라 1892년 임진년 진찬에서부터 나타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제국기 연향에서는 이러한 의례음식상

<sup>24</sup> 1901년 진연의 기록화인 연세대학교 소장 <신축진연도병>과 1902년 4월 진연의 기록화인 국립국악원 소장 <임진진연도병>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임진진연도병>은 1902년 11월 진연의 기록화이나 후반에 해당하는 4쪽만 있어 외진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찬안의 배설과 기록화의 관계는 차후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의 변화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황제국의 전환과 관련한 의례음식상의 변화는 소선, 대선, 염수의 분량에서만 있었다. 이것이 황제색인 황색으로 변한 기물의 변화와 함께 대한제국기 진연에서 황제국의 전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이 변화현상을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 사망 후 처음으로 왕인 고종을 위한 외연을 거행한 진찬이었기 때문으로만 해석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볼 때 개항 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고종의 정치적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군신의 관계를 형상화한 의례인 외연은 거의 거행되지 않았다. 1829년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 40세과 등극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하였던 진찬 이후 63년 만에 외연을 거행한 것 자체가 왕권 강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1892년 진찬에서는 그동안 거행하지 않았던 외연을 내연과 함께 거행한 것이다. 이 연향에서는 조선시대 연향 의례 중 가장 많은 음식상과 찬품을 마련하였고, 가장 높게 음식을 고이고 상화를 장식하였다. 嘉禮의 하나인 연향에서 음식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례적 성격이 강하지 않아 기물보다 먼저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시해, 갑오개혁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국왕의 위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종은 황제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대한제국의 선언 이후 예연을 거행할 때에는 오례와 연관성이 큰 의례음식상인 소선, 대선, 염수의 분량을 제후국이었을 때에 비해 2배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연의 의례음식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한제국기 고종이 1901년부터 1902년동안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3번이나 외연을 갖춘 진연을 거행한 것이 단순히 사치 풍조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의례음식을 미술사의 영역으로 끌어와 연향의 공간에서 시각매체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한편 『[고종임진]진찬의례』와 대한제국기 진연의례에는 외연, 내연, 그리고 야연, 회작, 야연 등 총 5차례의 연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외국 공사, 영사를 초청한 회작연이 별도로 더 있었던 기록이 산재하고 있으나 이 회작연은 의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의례의 내용이 연향의 대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외국 공사들에게 베푸는 회작연을 통해서도 고종이 연향을 통해 대외적으로 전달하고자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기록을 발굴, 보완한다면 대외적으로 연향과 연향음식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까지 더해져야 대한제국기 연향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_대한제국(大韓帝國, Great Han Empire), 예연(禮宴, court banquet), 의례음식상(courtesy food table), 대탁(大卓, daetak), 도식(scheme)

■ 투고일 2015년 6월 25일 | 심사개시일 2015년 6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5일 ■

## 참고문헌

### 1. 사료

『經國大典』  
『高麗史』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大韓禮典』  
『承政院日記』  
『樂學軌範』  
『增補文獻備考』  
『[高宗壬辰]進饌儀軌』  
『[光武辛丑]進宴儀軌』  
『[光武辛丑]進饌儀軌』  
『[光武壬寅四月]進宴儀軌』  
『[光武壬寅十一月]進宴儀軌』  
『[憲宗戊申]進饌儀軌』  
『皇城新聞』

### 2. 단행본

金尙寶, 『朝鮮王朝 宮中儀軌飲食文化』, 修學社, 1995.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_\_\_\_\_,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정교, 조광 편, 『大韓季年史』, 소명출판, 2004.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1, 민속원, 2003.  
\_\_\_\_\_,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_\_\_\_\_,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 3. 논문

-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奎章閣』 21, 2009, pp. 79-104.
- 김상보, 나영아, 「古代 韓國의 度量衡 考察」,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 1994, pp. 1-18.
-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변천」, 『東方學』 6, 2000, pp. 51-93.
- 목수현, 「大韓帝國期 國家 視覺 象徵의 淵源과 變遷」, 『美術史論壇』 27, 2008, pp. 289-321.
- \_\_\_\_\_, 「대한제국기의 국가 시각 제정과 경운궁」, 『서울학연구』 40, 2010, pp. 159-185.
- 朴銀順, 「朝鮮 後期 進饌儀軌와 進饌儀軌圖」, 『民族音樂學』 17, 1995, pp. 175-209.
- \_\_\_\_\_, 「조선후기 의례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 2005, pp. 249-308.
- 박정혜, 「朝鮮時代 宮中行事圖의 繪畫史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_\_\_\_\_,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만민화친(萬民和親)의 장, 조선시대 궁중과 사가의 연향」, 『춤, 그림 속에서 宴을 벌이다』, 천안박물관, 2010, pp. 169-175.
- 박현모, 「'왕조'에서 '제국'으로의 전환: '경국대전체제'의 해체와 대한제국 출범의 정치사적 의미 연구」, 『한국정치연구』 18.2, 2009, pp. 1-25.
- 방애영, 「朝鮮末期 宴享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23, 1990, pp. 327-396.
-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성우, 「朝鮮王朝 宮中宴會食儀軌」, 『韓國飲食文化研究院論叢』 1, 1988, pp. 15-31.
- 이성준, 「고종 즉위 40년 창경기념비전 동물상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54, 2014, pp. 1-34.
- 이육,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2004, pp. 59-94.
- 李潤相,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震檀學報』 95, 2003, pp. 81-112.
- \_\_\_\_\_,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 『韓國學報』 29.2, 2003, pp. 96-139.
- 이정희, 「대한제국기 원유회(園遊會) 실행과 의미」, 『韓國音樂研究』 45, 2009, pp. 353-389.
- \_\_\_\_\_, 「세계인과 함께 파티를 열다」, 『100년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pp. 347-382.
- 이중봉, 「朝鮮後記 度量衡制 研究」, 『역사와 경계』 53, 2004, pp. 41-76.
- 이철, 「조선 進宴 의례 연구-주권의 재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효지, 「조선왕조후기의 궁중연회음식의 분석적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2007, pp. 153-195.
- 張慶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조선후기 王室工藝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한국사학보』 25, 2006, pp. 647-672.
- 張南原,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조선후기 玩物 陶瓷」, 『美術史學報』 39, 2012, pp. 132-163.
- 정다혜, 「朝鮮 18~20世紀 白磁 高足樑匙(고족접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영준,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연구의 현황과 전망」, 『경제사학』 51, 2011, pp. 59-78.
-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지두환, 「고종대 진연 의례의 성격」,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3, 민속원, 2005, pp. 13-67.
- 최윤정, 「조선시대 목제가구 연구-왕실과 관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韓永愚, 「大韓帝國 성립과정과 <<大禮儀軌>>」, 『大韓史論』 45, 2001, pp. 193-277.

## 국문초록

대한제국기 오례의 하나인 예연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의례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례음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한제국기 거행된 4번의 예연 중 3번이 외연과 내연이 모두 구성된 규모가 큰 공식적인 진연이었다. 외연은 19세기 조선시대 가례 연향이 국가적 차원에서 왕실 가족 차원으로 축소된 시기에는 거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한제국전후 고종이 외연을 되살린 것 자체가 왕권 강화를 위한 시도였음을 의미한다.

대한제국기 진연에서 주빈의 의례음식상은 이전 조선시대의 연향에 비해 가장 의례음식상의 수가 많으며, 각 음식상에 올라가는 찬품의 수가 많았고, 또한 고임의 높이 또한 높았다. 그러나 이렇게 주빈의 의례음식상이 극대화된 것은 황제국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1892년 임진년 진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때 19세기 내연에서는 사라졌던 대탁을 영조대의 예연을 전례로 되살리면서 더욱더 주빈의 앞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대한제국기 황제국으로의 전환과 맞물리는 의례음식의 변화는 소선·대선·염수 등 의례적 성격이 강한 상에서 그 분량이 2배로 증가한 것이며, 이 음식의 분량 변화는 황제국으로의 기물 색 변화와 맞물려 예연의 공간에 등장함으로써 의례의 진행 매개체로서 시각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 이전 고종은 개항 후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연을 되살리고, 오례의 규정과 상대적으로 무관한 의례음식을 극대화시켰으나, 명성황후의 시해와 갑오개혁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왕권이 위축되자 기존의 제후국에서 벗어나 황제국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892년에 이미 의례음식에 고종은 정치적 의도를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연의 부활과 더불어 재등장한 의례음식상인 대탁을 영조대의 전례를 따라 고종이 지향하고자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의례음식은 당대 소모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시대성을 담보하고 있고 또한 연향공간에서 다른 기물과 더불어 위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각 매개체로 작용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 Space Styl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Courtesy Food Tables in Royal Banquets of the Great Han Empire

**Chung Heechu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court banquets in the Great Han Empire through courtesy food, which was a vital component of rituals. Among the four occasions of *yeyeon* (court banquet) that took place in the Great Han Empire, three were large-scale official *jinyeon* (banquet for the king) that consisted of *oeyeon* and *naeyeon*, which are court banquets held in the outer court and inner court respectively. No *oeyeon* was held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scale of court banquets for auspicious ceremonies became reduced from the national level to a royal family banquet. Therefore, Emperor Gojong's restoration of *oeyeon* represents an attempt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Compared to the court banquets that had been held in the Joseon period, the courtesy food tables for the guest of honor at *jinyeon* of the Great Han Empire period boasted the largest number of food tables and the widest range of *chanpum* (menu of dishes served) on each table with high stacks of the food served. However, the drastic expansion in the scale of courtesy food tables for the guest of honor had begun at the *jinchan* (a royal feast of smaller scale than *jinyeon*) held in 1892, prior to the transformation of Joseon into the Great Han Empire. As *Daetak*, which had disappeared from *naeyeon* by the 19<sup>th</sup> century, was revived based on the precedent of *yeyeon* of King Yeongjo, the guest of honor was provided with more luxurious courtesy food tables.

The transition into the Great Han Empire accompanied some changes in courtesy foods that doubled the amount of food served on *soseon*, *daeseon*, and *yeomsu*, which reflect the

---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ceremonial character of courtesy food tables for rituals. This change in food portions became reflected in the space of court banquet as the visual medium of rituals, along with the changed colors of utensils to accord with the dignity of the empire, the doubled foods had a visual impact as a medium for royal events by being served in the space of court banquets.

Prior to the Great Han Empire, King Gojong revived *oeyeon* to improve its national stature in the world after the opening of ports to trade and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and also maximized the scale of courtesy foods that were relatively unrelated to the rules of five rituals. However, as royal authority withered at home and abroad due to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seong and the Gabo Reform of 1894, the new Great Han Empire had to end subjugation to the Chinese Empire. Therefore, the courtesy food table selected by Gojong in 1892 is assessed to have had political intentions. In particular, the said trend can be confirmed in the revival of *oeyeon* along with the reappearance of *daetak* following the precedent set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is study found that, even if no physical form of courtesy foods remains today, because all specimens were all consumed at the time, courtesy foods held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and also played the important role of a visual medium that represents hierarchy as well as other objects used in the space of court banquet.